

광주역↔송정역 셔틀열차 '존폐 기로'

광주송정역과 광주역을 오가는 셔틀열차가 당초 손익분기점의 반 토막 수준에서 이용객이 그쳐 존폐 기로에 놓이게 됐다.

광주시의회는 "예산 낭비"라는 입장인 반면 시는 "환승대기 시간 단축 등으로 이용객이 꾸준히 늘고 있고, 광주역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며 존속해야 한다는 입장이 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9일 개통 이후 올해 5월 말까지 셔틀 열차 이용객은 5만2002명에 달했다.

월 이용객은 지난해 12월(13일 간) 2678명, 1월 9599명, 2월 9201명, 3월 8651명, 4월 1만310명, 5월 1만1563명, 1월 이용객은 지난해 12월 206명, 1월 310명, 2월 329명, 3월 279명, 4월 344명, 5월 373명 등이다. 올해만 놓고 보면 월평균 9865명, 1일 평균 327명이다. 1량에 2~3부 타는 경우도 허다하다.

시가 손익분수령으로 본 800명에

울들어 1일 평균 327명 손익분기 800명 못미쳐 "예산 낭비·돈 먹는 하마" vs "광주역 공동화 방지" 시의회 "활성화 대책 없으면 내년부터 예산 삭감"

반토막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홍보 기간을 거쳐 3~8월까지 6개월 간 운영해본 뒤 하루 800명 이상 이용하면 계속 운영하고, 800명 미만이면 셔틀열차 운영을 중단하겠다는 게 시의 당초 방침이다.

시의회 산업건설위 주경남(서구 4) 의원은 "시의 수요분석에 문제가 있고, 시간이 지나면 이용객이 늘 것이라는 막연한 주먹구구식 행적"이 결국 예산 낭비를 초래한 것 아닌가 싶다며 지적했다.

김민중(광산4) 의원은 "당초 예상 이용객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며 "본래 목적이 뭔지 곰씹어볼 문제"라며 지속 운영에 물음표를 던졌다.

유정심(남구2) 의원은 "돈 먹는 하마"라고 질타했다. 유 의원은 또 "코레일 40억원, 광주시 12억원 등 모두 42억원을 투입해 운영하는데, 수익금은 전액 코레일이 가져간다는 건 불합리하다"고 수익 배분에 문제점을 지적했다.

수치만 따지면 중단이 불가피하지만 시는 "광주역 공동화 방지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우선 개통 후 사흘 간 100명 미만인 이용자가 이후 연말까지 평균 212명, 주말과 휴일 280명이 이용했고, 올 들어서는 평균 300명, 주말과 휴일 500명에 육박하는 등 꾸준히 늘고 있어사다.

또 평균 28분, 길게는 40~50분에 달했던 셔틀 대기시간도 코레일 등과의 협의를 거쳐 20분대(KTX 기준)로 단축됐고, 체험학습 예약학생만도 6700명에 달해 이용자는 계속 늘 것으로 보고 있다.

정민근 시 교통건설국장은 "광주역 활성화와 지역 간 균형발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연말까지 부족사업비를 추가 투입해 이용객 증대에 힘쓰고 교육과 관광 자원으로도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내부논의 끝에 시가 1차 추경에서 요구한, 올 연말까지 추가 사업비 5억원에 대해 "올해 부족사업비는 인정되되, 이용객 증가 등 열차 활성화 대책이 나오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는 관련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겠다"며 조건부 의결했다.

신봉우 기자

베네수엘라 헬기 공격 경관 동영상 재등장

지난달 말 베네수엘라 카라카스 상공에서 대법원과 내무부를 표적으로 삼으며 헬리콥터 공격을 주도했던 것으로 알려진 경찰 간부가 5일(현지시간) 동영상에 재등장해 니콜라스 마두로 정부를 상대로 계속 싸울 것을 촉구했다고 NBC뉴스 등이 보도했다.

헬기 공격 주도자인 오스카 페레스 경관은 이날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에서 "다시 한번 우리는 카라카스에서 베네수엘라의 해방을 쟁취하기 위한 싸움을 계속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밝혔다. 베네수엘라 국기를 뿔 배 경으로 군복 차림으로 등장한 페레스는 지난달 27일 발생한 헬기 공격에 대해 "계획된 공격으로 인명피해 없이 목표를 달성했다"라며 "우리는 마두로 당신과 같은 살인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카라카스에서 발생한 헬기 공격 때 페레스와 일행은 대법원과 내무부에 공격을 가하고 수류탄을 투하했지만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마두로 대통령은 헬기 공격을 정권 전복을 위한 테러로 규정했다.

페레스는 "헬기 공격 이후 카라카스 인근 해안에 비상착륙했고 이후 산악지역을 통과해 카라카스에 재진입했다"며 2차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두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3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반 정부 시위로 현재까지 90명 이상이 사망했다.

멕시코 마약조직 간 총격전 최소 14명 사망

멕시코 북부 치와와 주에서 마약 조직들 간 총격전이 잇따르면서 최소 14명이 사망했다.

멕시코 당국은 사망자 숫자가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5일(현지시간) 말했다. 당초 사망자가 26명으로 보도됐지만 당국은 발견된 시신은 14구뿐이라고 정정했다.

오스카 알베르토 아파라시오 치와와주 치안담당 커미셔너는 보안군과 경찰이 라스 바르가스 지역의 총격전 현장에 도착했을 때 마약 조직들로부터 공격을 받았지만 이를 성공적으로 격퇴했다고 말했다. 마약조직들을 산악 지대로 추격하면서 마약조직들 사이에 총격전이 계속됐다고 덧붙였다.

미국과의 접경 지역인 치와와주에서는 마리화나와 양귀비 등이 대량으로 재배·생산되고 있다.

취화화주 경찰의 펠릭스 곤잘레스 대변인은 이날 총격전을 벌인 마약조직들은 시우다드후아레스를 본거지로 하고 있는 라리나아 조직과 시날로아 카르텔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대변인 에두아르도 에스파사는 14구의 시신이 발견됐다고 확인하면서 그러나 사망자 수는 더 많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20정의 총기들이 회수됐으며 현장에서 수류탄과 유탄발사기 등도 발견됐다고 말했다.

곤잘레스는 처음 사망자 수를 26명이라고 밝혔던 것에 대해 부상자가 수가 실수로 사망자 수에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멕시코는 올해 마약조직들 간에 세력 다툼이 격화되면서 거의 20년 만에 최악의 살인사건 발생을 나타내고 있다.

日 규슈 폭우 49만명 대피령·12명 연락두절

일본 규슈(九州)와 주고쿠(中国) 지역에 폭우가 쏟아져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6일 NHK 및 니혼게이지신문에 의하면, 전날 집중적으로 쏟아 부은 기록적인 호우로 규슈 북부 오이타(大分)현과 후쿠오카(福岡)현을 중심으로 6일 하천이 범람하고 산사태가 발생하는 등의 피해가 잇따랐으며 최소 12명이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현재 지위대와 경찰, 소방관 등 약 7500명의 수색대가 해당 지역에서 구조 작업을 펼치고 있다.

후쿠오카현 아사쿠라(朝倉)시에서는 전날 오후 9시부터 9시간에 걸쳐 70mm가 넘는 비가 내렸다. 기상청은 아사쿠라시에서는 6일 오전 8시까지 24시간 강수량 기준 관측 사상 최대치인 542mm의 비가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이 지역에서 평년 7월 한달 동안 내리는 비의 양의 1.5배에 해당하는 강우량이라고 기상청은 설명했다.

6일 오전 4시 현재 후쿠오카와 오이타현에서는 총 49만 9000명에게 대피 지시 및 권고가 내려졌으며, 아직까지도 규슈의 넓은 범위에 발달한 비구름의 영향으로 오전 9시까지 시간당 30~40mm의 비가 내리고 있다. 기상청은 이 두 현에 호우 특보를 발령한 상태다.

이번 폭우로 현재까지 12명이 연락이 두절됐다. 오이타현 히타(日田)시에서는 11명이 후쿠오카현 아사쿠라(朝倉)시에서도 1명이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순찰 중에 연락이 두절됐던 후쿠오카현 직원 3명은 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마철 감전사고 비상 7~8월, 전체사고 25%

국민안전처는 여름철 냉방 등으로 전기사용량이 늘어나고 고온다습한 날씨와 장마철 호우로 인해 감전사고 위험이 높아졌다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8월 안전처 재난연감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2011~2015년)간 총 2870건의 감전사고가 발생해 187명이 사망(연평균 37.4명)했다.

월별로는 7월에 380건으로 가장 많았고 8월 365건으로 여름철에 다른 계절보다 감전사고가 2배 가량 더 발생했다. 유형별로는 전력이 흐르는 충전부(전압이 걸려있는 부분)에 직접 접촉해 발생한 사고가 57%(1629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아크(합선과 같은 유사한 현상)발생 25%(721건), 누전 11%(320건) 순으로 나타났다.

충전부 접촉사고는 날씨가 덥다는 이유로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습한 날씨로 장갑이나 의류가 젖은 상태에서 작업을 한 경우에 주로 발생했다.

안전처에 따르면 여름 장마철 감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젖은 손으로 전기 제품을 만지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조각진 안전기획과장은 "누전차 단기를 설치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비가 오는 날에는 가포등과 신호등뿐만 아니라 입간판, 에어컨 실외기 등의 접촉을 최대한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활짝 핀 해바라기 하지와 대서 사이에 들어 여름 더위가 시작되는 절기상 소서(小暑)를 하루 앞둔 6일 오후 경기 수원 당수동 시민농장 해바라기 밭에서 등에 한 마리가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다.

"금호타이어 노사, 12일 경영위기 극복위해 머리 맞댄다"

금호타이어는 오는 12일 광주공장에서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 대통합 간담회'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금호타이어 노사는 지난 5일 광주공장에서 진행된 27차 본교섭에서 경영실적 등 경영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눈바 있다.

이날 노사는 회사가 당면하고 있는 경영상황에 대해 회사와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만

들기 위해 노사 주요 인원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12일 열기로 합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한섭 사장을 비롯, 금호타이어 경영진과 하용대 대표지회장, 노조 집행부와 대의원 등 2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노사는 이날 '경영위기 극복'과 '일자리 지키기'를 주제로 하심찬회한 토론을 통해 실질적인 대안 마련과 협력을 모색할 계획이다. 금호타이어는 워크아웃 졸업 이

후 시장 환경 악화와 경쟁력 저하로 2015~2016년 2년 연속 당기순이익이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에는 영업이익마저 적자로 돌아서 심각한 경영위기를 맞고 있다.

여기에 채권단이 중국 더블스타와 지난 3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하고 배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임형택 기자

**야호센터는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의 꿈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Drawing 이호동

062-960-6980
광산구 사암로 340번인강길 5

광산구